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에 이용자들 북적북적

정보화 시대의 허브센터로 자리잡아가야



최첨단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이 이용객들로 넘쳐나고 있다. 사진은 한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의 내부 모습.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도서관에는 이용자들이 매일 만원이다. 휴일에 편한 마음으로 도서관에 갔다가는 불쾌한 마음만 안고 돌아오기 일쑤다. 오전 아홉시를 넘으면 모든 좌석이 꽉꽉 들어차고, 대기자석과 복도에도 문제집 푸는 학생들로 넘쳐난다. 평화롭고 고즈넉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으니, 도서관인지 독서실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나올 만도 하다.

새롭게 단장한 디지털 자료실 호응 좋아

이런 도서관에 최근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현대적인 실내장식으로 새 단장한 전산 정보실이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노후한 컴퓨터도 새것으로 바꾸고 공간도 넓히고 다양한 영상정보 서비스 시설을 갖춰 '디지털 자료실'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5개 공공도서관이 지

난해 11월 일제히 디지털 자료실을 개설·확충한 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천중앙도서관의 경우 현재 월 이용자가 1만4천명을 넘어서 평균 40.2%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말 남산도서관과 양천도서관이 컴퓨터시설을 확충했으며, 올 6월까지 정독, 동대문, 용산, 송파, 서대

문, 고척, 도봉, 어린이도서관 등 8개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단장한 디지털자료실을 개방할 계획이다. 양천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은 목동 아파트단지와 가까워 가정주부를 비롯한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다. 이곳에서 일하는 임영옥씨는 "컴퓨터를 새것으로 바꾼 후 인터넷 영상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프린트 출력도 1장에 30원이라 많이 이용한다. 특히 전축 시스템을 갖춘 오디오 코너가 인기가 좋다"며 전반적으로 이용자층이 넓어졌다고 말한다. 디지털자료실은 인터넷 정보 검색에 국한됐던 과거에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다. DVD 영화와 다양한 채널의 위성 TV도 볼 수 있고, 여학코너와 노트북코너 등 좌석을 코너별로 구성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문을 연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도서관 운영의 새 모델을 실험 중이다. 787평 규모로 확장하면서 1일 수용인원이 기존 3백

명에서 5백명으로 크게 늘었다. 가장 새로운 점은 인터넷 좌석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해 원하는 좌석과 시간을 예약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편해졌다. 장애우석도 18개를 마련했는데, 장애유형에 따라 이용기기 조절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보화담당관실 이 선씨는 "디지털 자료실은 휴게실, 자료실, 스테디룸의 기능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며 현재 시행중인 시스템의 장단점을 보완해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6월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의 원문DB를 서비스할 계획인데, 모든 공공도서관과 정보를 공유해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생산기지로 키워나가야

도서관 실무자들은 앞으로 디지털 자료실이 도서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서관이 단순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최신 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허브센터로 커나갈 수 있는 토대가 돼줄 것을 기대한다.

이용훈 도서관협회 기획부장은 이런 디지털자료실 확대사업의 일차적 의의를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실험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면서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상의 디지털 자료가 점점 유료화되고 상업자본의 정보독점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도서관이 앞장서 유익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앞으로 도서관이 단순히 정보를 '소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디지털 자료실이 주축이 돼 각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그 지역과 관계 있는 오프라인 콘텐츠를 디지털 정보로 재생산하는 정보생산기지로써도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강성민기자